



換率上昇과 精油産業의 現況

權 五 倫
〈湖南精油 상무〉

I. 現行 換率制度和 환율동향

1. 現行 환율제도

우 리나라는 1964년 5월 이후 단일 變動換率 制度를 채택하여 왔으나 사실상 固定 換率 制度和 다름없이 운용되어 왔으며 1980년 2월 27일부터 환율결정방법을 환율변동의 안정성 및 주요 교역상대방과의 경쟁유지라는 양측면을 고려하여 SDR바스켈과 교역량을 가중치로한 독자 바스켈을 결합한 複數通貨 바스켈제도를 채택하여 환율이 점진적으로 실세를 반영토록 하였다.

환율의 流動化는 환율이 고정되었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던 환율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원유비 증가, 환차손발생등으로 유가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에 따라 환율상승의 油價에의 적기반영은 精油産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의 하나로 되었다.

2. 환율동향

1975년 이후 환율은 계속 美 달러당 484원으로 고정되어 왔으나 1980년 1월 12일 580원으로 인상된 후 곧이어 2월 27일부터 變動換率制를 채택함으로써 同年에 36.6%의 급격한 상승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연 평균 약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의 환율상승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연말환율 (원/\$)	485	662.30	702.70	750.70	797.50	829.50
연간상승 폭 (원)	-	177.3	40.4	48	46.8	32
연간상승률 (%)	-	36.6	6.1	6.8	6.2	4

註: 연말 환율은 전신환 매도율 기준임.

1985년에 들어서도 환율은 계속 상승하여 4월 3일 현재 美 달러당 858원으로 1984년말의 829.50원에 대비 3.44%의 상승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작년 동기중 환율이 0.39%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비할 때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의 환율 전망에 관해서는 美 달러화의 강세 지속 여부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나 현 환율이 아직도 시장 실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圓貨 과대 평가설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적인 환율상승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II. 환율변동의 原價에의 영향

환율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精油社의 原價 및 비용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원유도입 비용(원화표시 原油代)

원유는 달러로 수입되고 있으므로 船積日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 원유선복인도가격(FOB)의 원화표시액도 변동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FOB 이외에도 운임, 도착후 지불되는 관세, 석유사업기금등의 정부부문비용, 도입부대비용의 대부분이 환율에 연동되어 있어 환율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

2. 환차손

(1) 유전스 환차손

精油社가 원유를 도입한 후 판매대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원유수송기간, 정제기간, 재고보유기간, 외상판매기간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의 원유수입 자금이 필요하다. 원유수입을 위하여 지불하여야할 금액이 일일 약 12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임에 비추어 이러한 원유 수입자금은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금융시장에서 단기 外貨資金으로 조달하고 있다. 따라서 원유구입 시점의 換時勢로 美 달러화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원유도입 비용으로 계상되지만 실제 자금 결제는 원유구입 시점이 아닌 수입금융 결제시에 행해진다. 이 기간 사이의 환율상승으로 도입시 금액과 결제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유전스 換差損이라 한다.

(2) 외화차입금 환차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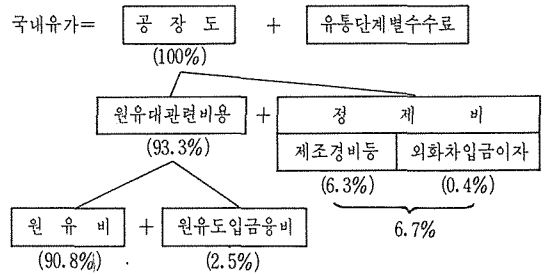
정유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그 건설에는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므로 그 일부를 외국으로부터 장기차입금으로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외화 장기차입금 잔액의 원화표시 장부가액이 환율상승으로 증가하는데 이 증가폭을 외화차입금 환차손이라 한다.

3. 유전스 및 외화차입금 이자

原油구입을 위해 해외로부터 제공받는 신용공여기간에 대하여 지불되는 이자 및 외화차입금 이자도 美 달러화로 지불되므로 환율의 상승은 곧 지불이자액의 증가를 가져온다.

Ⅲ. 국내 石油製品價格의 구성내역

현행 국내 석유류제품가격(공장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나누어 원유대 관련비용과 정제비로 나눌 수 있고, 원유대 관련비용은 다시 원유비와 원유도입 금융비로 나누어진다. 다시 말하면 국내 油價構造는 원유비+원유도입금융비+정제비로 3분되며 원유비는 원유선복 인도가격(FOB), 원유수송비, 국내도입부대비(방위세, 무역특계자금, L/C 관련비용 등), 관세, 석유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유도입금융비는 원유도입시 연지급 수입금융 또는 단기의외화차입을 함에 따른 금융비용이고 정제비는 제조경비, 수송저유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국내 석유류제품가격 구성내역상 특징은 원유대 관련비용이 93.3%나 차지하며 원유대 관련비용 및 0.4%의 비중을 갖는 외화차입금 이자를 합할 경우 총 93.7%에 달하는 비용이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Ⅳ. 換率이 油價에 미치는 영향

환율이 1%(예: 8.5원) 상승시 정유업체는 원유대 관련비용 및 외화차입금이자 상승으로 약 0.94%(년 520억원) 또한 약 28억달러의 원유도입 유전스 및 외화차입금 환차손으로 약 0.4%(230억원)의 유가조정요인이 발생하여 연간 약 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추가부담을 안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율이 1% 오를 경우 원유비증가 0.94%, 환차손발생 0.4% 등 모두 1.34%의 油價 조정요인이 생기게 된다. 또 환율이 연간 4% 오르면 원유비증가 3.76%, 환차손발생 1.6% 등 모

두 5.36%의 국내유가조정 요인이 발생한다.

V. 환율변동과 油價반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동환율제 채택 이후 환율변동은 국제원유가 변동과 더불어 油價조정 요인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게 되었으며 국제원유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油價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원유가격의 油價반영과는 달리 환율변동의 油價반영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첫째,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은 불가항력적인 통제범위 밖의 사실로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왔으며 이로 인하여 원유가격 변동은 비교적 適期에 油價에 반영되어 왔으며 또한 원유가격은 일정기간 고정적이므로 한번 油價에 반영되면 원유가격이 변동될 때까지는 원유가격 자체로서는 精油社에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원유가격은 제 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1980년 및 1981년의 지속적인 상승을 고비로 1982년도 이후에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변동시기도 연 1 회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單位 : \$/B)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아라비안 라이트	26.00 (1.1)					
	28.00 (4.1)	34.00 (10.1)	34.00 (1.1)	30.00 (2.1)	-	29.00 (1.1)
	30.00 (8.1)			29.00 (3.1)		28.00 (2.1)
	32.00 (11.1)					

註 : () 는 일자

그러나 환율변동은 주로 原油價 변동으로 인한 油價조정시에 부수하여 油價에 반영되어 왔으며 원유가격의 변동이 없는 상황하에서의 환율 상승만의 요인으로 인한 油價조정은 대국민실득의 어려움, 환율이 다시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최대한도로 억제 또는 지연하여 온 실정이다.

둘째, 이에 따라 油價에 반영된 환율과 실적 환율의 괴리가 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2년

간의 油價에 반영된 환율과 실적환율의 괴리 및 그로 인한 정유사 추가부담은 아래와 같다.

(1) 1983년도

1983. 4. 19 油價조정시 당시 경제운용 계획에 반영된 연간 환율상승폭 3%를 기준으로 油價를 조정하였으나 1983년도 실적 환율은 6.2%나 상승함에 따라 精油社에는 약 1,100억원의 환율상승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政府는 1983. 12. 1 기금 인하를 통해 일부부담을 해소하였음에도 잔여 약 400억은 1984년도로 이월되었다.

(2) 1984년도

1983. 12. 1 석유사업기금 인하시 83. 12. 1 환율인 797.90원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실제 환율은 4%나 상승함으로써 精油社에는 약 1,200억원의 환율상승으로 인한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세째, 국제원유가격과 환율은 다같이 불가항력적인 통제 범위의 사실로 이해되고 있지만 원유가격에 관해서는 변화하는 국제석유시장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현물시장에서의 저렴한 需구입 노력 확대 등으로 비용절감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며 1983년 및 1984년도에 전체 원유도입량의 각각 19.6%와 21.9%를 현물시장에서 도입하였다.

그러나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 대책으로서는 원화금융의 확대, 先物환거래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소요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못하고 따라서 환율변동의 適期 油價반영이 절실하다.

VI. 精油産業의 손익현황과 문제점

1. 정유산업의 손익추이(79-83)

과거 정유산업은 과다한 이익을 거두어 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실상은 상술한 바와같이 환율상승이 석유제품 원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油價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과거 5년간 262억원의 누적결손을 시현하였다.

精油會社의 결산실적은 5년 누계로 279억원 이

정유사업의 손익추이(1979-1983)

(單位: 억원)

(單位: 억원)

연도	1979	1980	1981	1982	1983	합계
정유사업	15	△575	△246	529	15	△262

익이나, 이것은 정부의 별도가격 관리를 받고 있으며, 별도의 자본투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石油化學, 發電 등 타 산업에서 발생한 것이며, 석유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정유업 자체는 지속적인 결손으로 적자 산업화되고 있다.

기타사업의 손익추이(1979-1983)

(單位: 억원)

연도	1979	1980	1981	1982	1983	합계
기타사업	179	91	71	28	172	541

2. 정유산업 손익의 평가

精油産業의 79~83년 기간중의 연평균 결손 52 억원은 현행 전기예금 금리수준이나 정부관리가격의 원가검토 요령의 기준이 되고 있는 자기자본 이익률 10%와 비교할 때 연평균 190 억원, 5년간 948 억원이 미달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單位: 억원)

연도	1979	1980	1981	1982	1983	합계
자기자본 10% 이익	63	63	127	173	260	686
손익실적	15	△575	△246	529	15	△262
차이	△48	△638	△373	356	△245	△948

3. 타 업종과의 비교

(1) 순 이익 규모

정유산업은 79-83년 기간중 총 262억원의 누적 결손을 보인데 비해 정부의 가격관리를 받고 있는 電氣業과 연탄업은 각각 9, 260억원, 366억원의 이익을 기록했고, 가전제품업 958억원, 제약업 642억원, 시멘트업 619억원, 화장품업은 377억원의 이익을 올려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연도	1979	1980	1981	1982	1983	합계
정유업(5개사)	15	△575	△246	529	15	△262
전기업(1개사)	1,296	1,885	1,947	1,829	2,303	9,260
연탄(15개사)	52	188	39	33	54	366
시멘트(5개사)	106	71	△103	167	376	619
가전제품(7개사)	193	△142	162	180	566	958
철강(10개사)	12	2	5	46	142	207
화장품(2개사)	57	60	60	74	126	377
제약업(16개사)	16	13	157	230	226	642

(資料) 전기, 연탄업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시멘트, 가전제품, 철강, 화장품, 제약업은 상장회사 결산자료.

(2) 자기자본 이익률 비교

79-83년 기간중 정유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3.1%로서 화장품 및 제약업의 16.7%, 가전제품의 11.5%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單位: %)

연도	1979	1980	1981	1982	1983	평균
정유업	1.7	△60.9	△17.8	20.6	0.5	△3.1
전기업	15.8	17.8	14.0	7.5	6.6	8.7
연탄	19.3	23.6	16.1	9.6	11.7	14.8
시멘트	11.5	4.4	△5.3	5.1	10.2	5.4
가전제품	15.9	△13.3	10.4	10.4	20.5	11.5
철강	11.6	2.2	0.3	2.5	6.6	3.6
화장품	20.6	15.3	14.2	13.9	19.7	16.7
제약업	22.9	15.3	15.8	18.6	15.8	16.7

(3) 매출액 이익률 비교

79-83년중 정유산업의 매출액 이익률은 △0.1%로서 제약업의 5.0%, 화장품업의 4.8%, 가전제품의 2.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單位: %)

연도	1979	1980	1981	1982	1983	평균
정유업	0.07	△1.41	△0.44	0.87	0.02	△0.1
전기업	12.9	11.3	8.5	6.9	7.7	8.7
연탄	1.8	2.0	1.0	0.7	1.2	1.4
시멘트	2.9	1.3	△1.6	2.2	4.2	1.9
가전제품	3.5	△2.6	1.8	1.8	3.2	2.0
철강	2.4	0.2	0.1	0.5	1.3	0.7
화장품	6.1	4.9	4.0	3.9	5.7	4.8
제약업	7.0	4.9	4.6	5.5	4.8	5.0

Ⅶ. 1984년도 경영실적 및 1985년도 전망

1. 84년도 정유사업의 경영실적

84년도의 精油業界는 석유화학, 발전 등 기타사업을 제외한 정유사업부문에서 17억원의 저조한 경영실적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손익규모는 가전 3사의 379억원, 시멘트업의 411억원, 자동차 제조업 589억원, 섬유업의 223억원 등과 비교하면 극히 저조한 실적을 알 수 있다.

84년도 정유사업 손익현황

(單位: 억원)

유 공	호 남	경 인	쌍 용	극 동	계
108	△88	9	30	△42	17

지난 83년 12월 1일 油價조정시 당시 환율 797.90원이 84년말까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현행 유가가 책정되었으나 실제로는 84년말 현재 4%나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1,200억원의 원가부담이 생겼으며 현물시장 低價原油도입, 경영합리화 등 자구적 노력으로 약 700억원의 손익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약 500억원의 손실요인은 그대로 남아 정부가 가격 심사기준에 따라 油價에 반영된 이익을 상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저조한 경영성파로 정유업계는 차관계 약 이행등 대외적 관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85년도 판매수익중 일부를 84년도 손익에 조정산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별손익은 다음과 같다.

(單位: 억원)

유 공	호 남	경 인	쌍 용	극 동	계
108	△ 7	9	50	△15	145

국내 정유산업의 손익평가나 석유제품가격 책정에 있어서 기타부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어야 한다.

○ 精油業界의 기타사업은 석유화학, 발전, 유회유 부문으로 구성되는 바 이와 같은 사업은 별도의

투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별도 가격관리를 받고 있다.

○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基幹産業으로서 기타부문과 정유부문의 손익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산업별 평가기준이 상실되고 현 상황과 문제점 파악이 곤란하게 되어 향후 산업정책 수립이 불가능하게 된다.

○ 기타부문은 회사별로 성과와 규모가 크게 상이하여 精油産業 평가시 기타부문 수익을 고려한다면 기타부문 범위가 미미하거나 결손부담을 안고 있는 회사에는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84년도 기타사업 손익현황

(單位: 억원)

유 공	호 남	경 인	쌍 용	극 동	계
189	19	26	△87	21	168

2. 85년도 전망

85년도의 경우에도 4월 3일 현재 환율은 858원으로서 작년말 대비 3.4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 油價에 반영되어 있는 797.90원에 비해서는 7.53%를 기록하여 금년중 4%만 환율이 오른다고 하여도 4,440억원, 5% 상승하는 경우에는 4,830억원, 6% 상승하는 경우는 5,210억원의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나 반면 이익개선요인은 원유가 하락으로 예상되는 590억원의 원가 감소 뿐이므로 關稅, 基金의 인하조치 등 관련대책이 조속히 수립 시행되지 않는다면 막대한 결손이 우려된다.

Ⅷ. 結 語

換率上昇이 油價에 적기 반영되지 않는 경우 유가인상요인을 누적하고 결과적으로 정유산업의 재무구조의 부실화, 원유도입 유전스사용 규모의 증가, 그에 따른 국제수지의 영향 외에도 누적된 인상요인을 油價에 일시에 반영할 경우 여타 물가에의 충격등 국내경제에 심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따라서 정유업계는 환율상승에 따른 손실을 누적

시키지 않고 적기에 해소함으로써 장기적인 가격안정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내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油價의 換率連動制를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다.

정유업체는 앞으로도 유틸시설의 활용을 통한 質加工 등 해외사업의 추진, 현물시장으로 부터의 저

가원유도입,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자구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나 환율상승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정유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환율상승을 油價에 적기 반영함으로써 정유산업의 전전한 발전과 기초에너지 주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 産油國動向 □

격화되고 있는 페르시아만 전쟁

4년 이상 지속되어온 이란·이라크전쟁이 또 다시 격화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피비린내 나는 지상전을 감행한 이후 수개월간 전쟁은 소강상태를 유지해 왔다. 양 당사국은 이번에는 서로 상대방의 수도권을 공습하는 등 전쟁을 확대시키고 있다.

세계석유시장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라크 동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최근의 전투에서 2~3만명의 전사들이 습지에서 비참하게 죽어 갔으며, 그 규모는 소수이나 점점 더 많은 유조선들이 페르시아만에서 피격당하고 있다.

양국의 사정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전쟁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가나 석유공급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않을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석유공급이 비교적 풍부한 편이며, 잉여생산시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의 전쟁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된다면 세계 석유시장에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 이라크의 전략

이라크는 이번 전쟁을 수행하면서 2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첫째는 이란에 크나큰 타격을 주어, 한편으로 국내에서 후세인 대통령의 명성을 드높이며, 다른 한편으로 현재는 잠잠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쟁반대세력의 목소리를 높이지는 것이다. 이란이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호메이니의 고집과 회교도들의 성전의식 때문이지만, 사실상 계속된 전투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무분별하게 살육당하고 있어, 일부의 군부수뇌진이나 비성직자들은 전쟁을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둘째는 이란이 과감한 공격을 감행하게 함으로써 이라크는 전 공군력을 동원하여 이란측에 경제적으로 크나큰 타격을 입히자는 것이다. 이라크가 이러한 전략을 가지

— 이란의 선택권

이란의 선택권은 제한되어 있다. 이란은 이라크의 대

규모 인구 밀집지역을 공격, 이라크 국민들이 후세인을 반대하게 함으로써 이라크의 현 정치정세를 바꾸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이를 수행할 수단이 부족하다. 미국의 부품지원이 없어 이란의 공군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발생한 최근의 폭발사건이 이란의 주장대로 이란의 지대지 미사일 공격 때문인지, 또는 이라크의 주장대로 차량폭발물 적재에 의한 공격 때문인지 누구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만일 미사일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이들 물자를 리비아나 시리아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의 또 다른 선택권이 있다면 전쟁을 국제적인 문제로 야기시키는 것이다. 즉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의 주요 석유수송루트를 봉쇄하든가, 또는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이 전쟁에 개입하게 하는 것이다. 미온적이거나 일부 서방국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려는 어떠한 기도도 적대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이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해협의 봉쇄는 어쩌면 이란으로서는 힘에 겨운 일인지도 모른다. 이란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페르시아만에 기뢰를 부설한 가능성이 있다. 이란이 이라크의 공격으로 인해 석유수출이 중단되면 해협의 봉쇄가 자국에 더 이상의 불이익은 되지 않으며, 강대국의 개입으로 자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있다면 Sirri섬으로 석유를 중계수송하는 유조선은 물론 Kharg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이라크는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의 Kharg섬 공격은 이란이 가공할만한 방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경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라크는 이러한 방공망을 뚫고 Kharg섬 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공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이란의 석유수출이 금지된다면 이란은 크나큰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